



Summer Vol.6 신바람 나는 일터

희망실천

EM
Empowerment Society
실천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 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발행일 2010. 6. 28

발행인 김영환 원장

편집인 박미선 선임팀장

디자인 김지현 디자이너

인 쇄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 화 02.875.9744, 9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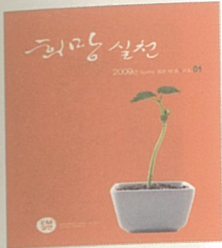
팩 스 02.875.9965

이메일 em21c@hanmail.net

홈페이지 www.em21c.com

Contents Summer Vol.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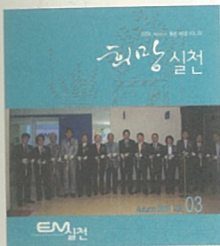
2009



2009, 봄



2009, 여름



2009, 가을



2009, 겨울

2010



2010, 봄



2010, 여름



2010, 가을



2010, 겨울

일상탈출 04

- 거제여행

- 거제여행 | 박동진
- 소태풍이 몰아치던 날 | 황찬희

- 일본여행

- 가깝고도 먼 섬나라 日本을 다녀와서 | 신영권
- 아리가토고자이마스... 귀에 맴돌다 | 양현모

행복했던 순간들 22

- 2010 거제여행
- 2010 일본여행

여행은 어땠나요? (만족도 조사) 26

- 국내 · 국외 여행 만족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28

취업유지모임 “햇살” 봉사활동 일기 29

- 일하며 봉사하는 우리는 햇살 동료들 | 이말순

신입사원 인터뷰 30

- 행복한 일터 | 곽 철
- 열심히 일하자 | 정동욱
- 자기소개서 | 홍진기
- Thank you | 조민주

실습활동보고 34

- 낯선 익숙함 | 이아영

소방안전교육 35

장애인연금제도 소개 36

자원봉사 활동보고 38

EM실천 이용 안내 40

가제여행



우편사업부 | 박동진

나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남기고 가져왔던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었던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거 같다.

자연은 늘 그곳에 있다. 마음을 열어야 더 소중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다고 들 하는데...

산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바위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
꽃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절벽도 있었고, 바람이 있었으며,
하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 같다.

바람의 언덕에 염소들은 오늘도 풀을 뜯고 있었겠지.
언덕 위 풍차는 오늘 또 어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을까...

난 그곳에 서서, 무언지 모를 짐을 하나 놓고 온 기분이 들었다.
무엇이었을까? 아마 작은 열쇠에 문을 하나 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흘러가고 또 흘러오는 저 파도에 흐느낌처럼,
 흘러 흘러 오딧 섬 하나를 내 가슴 속에 새겨놓고 싶었던
 거 같다.

새는 하나에 하늘을 가지고 있다. 그 세상만큼은
 자신의 것이다.

그것이 꿈속일지라도, 새는 또 이리렇게 노래한다.

지금 나에게 나를 만드는 일이 남았다.

그곳에 바람의 언덕도 하나 남기고 싶다.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나에게 글을 쓰라고 한다면

그 글이 내 글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을 거 같다.

아내가 잠이 들었다.

고요를 깨우는 저 비처럼 다시 흘러 바다로 가야하겠지.

거제.

그리고 외도.

두 번째 찾은 남해바다는

함께라는 우리의 섬을 만들어 놓았다.

지키면서 새롭게 이 미소 간직하고 싶다.

파도에 흐느낌이 이전 슬프지만은 않은 거 같다.

소태풍이 몰아치던 날



우편사업부 | 황찬희

내일 거제도도 놀러 가는데 어저께!! -.- 하면서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절대로 배를 타지 말라는 당부, 요즘 천안함 사건으로 배타기 무서운건 사실이다. 28일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비가 오지 않고 심하게 바람만 불었다. 20여명의 동반자들과 기사님, 가이드들과 함께 신나는 여행을~~ 출발!!

그러나 가던중 나의 기대와 다르게 비가 오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굵어졌다. 여행의 첫 코스인 거제도에 도착, 장승포항에서 외도, 해금강여행을 계획했으나 바다는 우리들을 반겨주지 않는듯 했다. 서둘러 배시간에 맞추었으나 굵어지는 빗방울과 거친 파도, 해양경찰의 제제들로 인해 우리들은 계획하지 않았던 거제의 포로수용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제도는 제주다음으로 한국에서 큰섬이며 한국전쟁당시 인민군 포로들의 삶을 현실감있게 느끼게 되었다. 인민군들의 인권은 없었으며 화장실도 없이 개도배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느꼈다.

갑자기 계획한 포로수용소 견학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거제의 바람의 언덕을 갔다. 바람의 언덕은 말 그대로 세찬 바람으로 우리를 맞이 했다. 전망좋은 민둥산, 바다가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 왔다. 이후 검은 조약돌로 뒤덮인 도장포 마을좌측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으로 전망이 좋고 TV드라마 등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숙소에 가기전 우리는 마지막 코스로 신선대에 갔었다. 깎아지른 바위섬, 그 옛날 신선들이 놀던 자리라고 한다.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신선대를 배경으로 감쪽한 포즈의 사진을 몇장 찍고 너무 시원한 바람



에 머리가 아팠지만 곧 숙소에서 쉬수 있다는 생각에 가히 나쁘지 않았다. 숙소는 그림같은 배경을 한 호텔은 아니었지만 피곤한 몸을 쉬게할수있는 깨끗한 곳이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한껏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다. 일과속에서 떠난 금번여행, 우리들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흔들렸다. 이튿날, 외도와 해금강으로의 재도전을 위해 아침일찍 장승포로 향했다. 그러나 해금강은 우리를 쉽게허락해 주지 않았다. 2시간가까이 우리들은 해금강을 향하는 배머리에 턱을 괴고 기다리는 것 밖에는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한참의 기다림속에 우리들은 해금강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싣었고 결국한 선장님의 해설을 들으며 거친바다를 향해 달렸다. 해금강에 도착, 웬만한 기호가 아니면 들어 갈수없다는 십자동굴, 용궁동굴에 배를 타고 깊이 들어 가보았다. 하늘에서 쳐다보면 십자처럼생겼다는 십자동굴, 용이 들어와 앉아 있을 것 같다는 용굴바위의 위대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바위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한방울을 먹으며 웬지 불로장생할것같은 느낌이다.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 또한 해금강에서 불노초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아쉽게도 외도는 파도가 높아 볼 수 없었다. 잠시 함양에 들러 늦은 점심을 먹고 피곤한 몸을 신어 서울로 향했다. 너무도 피곤했지만 즐거운 여행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엄마를 주기 위해 쥐포를 샀고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작은 여행이 아니라서 이번 여행이 내겐 행복여행이었다.

가깝고도 먼 섬나라

日本을 다녀와서



인쇄사업부 | 신영권

민족 감정과 선입관이 앞서서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그러나 마치 자취방 이삿짐을 꾸리듯이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쑤셔 넣으면서 드디어 두 번째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하는 감상이 생겼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들까지 챙기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 정보나 지식은 백지 상태인 채로 집을 나섰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업무에 다시 적응하랴 새로 처방된 약에 적응하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채워진 가방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렇게 부담스러워진 생활의 무게를 끌고 들고 하면서 약속 장소인 김포공항역에 도착해서야 이번 행복여행이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부지런한 EM실천 회원들은 역시 약속보다 훨씬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거의 다 모여서 아직 안 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즐거운 기대와 행복한 상상 속의 기다림. 회원들은 약간의 불안과 커다란 기대가 뒤섞인 상태인 듯 보였다. 일상의 무게를 뒤로 하고 우리는 인천공항을 향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기타)규슈를 향해 출발했다.



5월 12일 - 깔끔한 나라 일본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가이드와 미팅을 하고 짐을 부치고 출국 수속을 하고 나니 아침과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지 너무 배가 고팠다. 잠시 남는 시간을 이용해 00형과 맥도날드에서 머핀과 음료수를 사 먹었다. 허기진 속을 달래고 그래도 차지 않은 배는 기내식으로 보충하리라 생각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전에 가족들과 중국 여행을 갔을 때는 비행기가 커서 그랬는지 이륙할 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활주로로 달리기 시작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까지 붕 뜨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고도에 이르고 안정적으로 날기 시작하자 커다란 요동은 없었다. 나중에 가이드분이 우리가 너무 운이 좋다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요동이 무척 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둘째 날 아소산 분화구를 보러 갔을 때까지 운이 좋았다.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가 옆에 앉은

00형이 "저도 김밥 주세요!"하고 큰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깼다. 그리고 받은 기내식-삼각 김밥에 오렌지 주스였다. 기체가 깨진, 그리고 00형에게 기내식이 잘 나올 거라고 아는 척 했었던 무안함과 허무함에 잠깐 충격에 빠졌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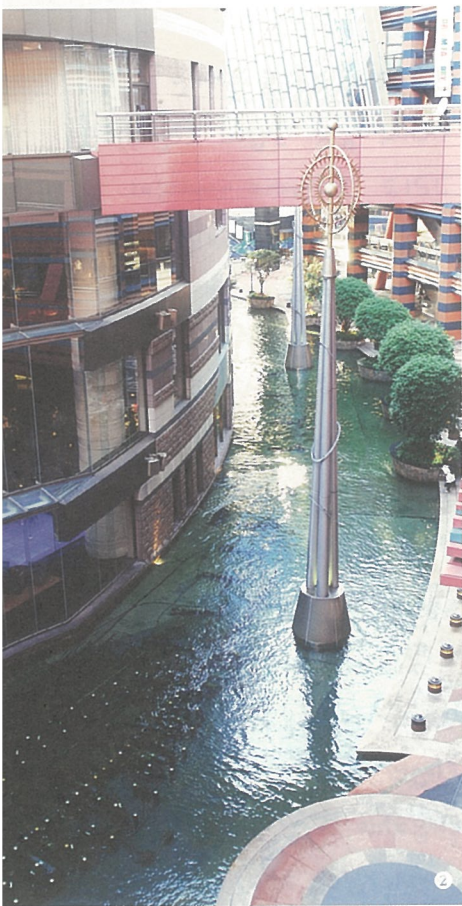
하늘을 날며 구름처럼 흘러가는 지난 시간과 세월의 무게가 덧없이 느껴지고,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나의 새로운 꿈인 TM실천과 함께 한 날들과 앞날들이 서서히 커다란 섬을 향해 착륙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기타큐슈 공항은 작고 아담했다.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왔다. 입국 수속을 하는데 남자 입국 심사원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로 자꾸 질문을 했다. 그 때서야 비로소 여기가 일본이구나 하는 생경하고 난감한 기분이 되었다.

나는 대충 콩글리쉬로 대답하며 그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고 입국 검사대를 빠져나왔다. 학교 다닐 때 외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결 하는 후회도 들었

다. 공항 밖에서는 우리 일행을 태우고 여정을 함께할 기사님과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버스로 1시간가량 이동해서 후쿠오카 시내로 들어섰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차창 밖의 풍경은 깔끔하기 그지없었다. 개량식 한옥 같이 단정하고 모습의 집들, 논과 밭까지도 구획 정리가 잘 되어 바둑판을 연상시켰다. 기타규슈의 삼대도시 중 하나라는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캐널시티라는 복합 쇼핑몰을 관광했다. 일본식 라면을 사먹었는데 가이드께서 5월 신상품이라고 추천해 주신 라면이었지만 별로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한국 사람에게는 역시 김치를 곁들여 먹는 한국 라면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물가가 비싼 만큼 상품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너무 비쌌다. 어쩔 수 없이 아이쇼핑만 하고 음악이 나온다는 분수 쇼를 구경했는데 시간을 못 맞추어서 그랬는지 우리 동네 분수 정도였다. 실망감을 감추고 담배를 피우러 흡연 구역을 찾았는데 캐널시티 입구에 몇 명 들어가면 꼭 찰 것 같은 지붕이 둥그런 공중전화박스 같은 곳이었다. 일본에서는 거리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흡연자를 격리시킬 줄은 몰랐다. 캐널시티 관광을 마치고 다시 기타규슈의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뷔페식 이었는데 닭튀김이 제일 맛있었다. 너무 맛있게 먹다가 혀를 깨물어 얼얼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커피를 찾아서 마시는 것까지 사소한 하나하나가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무척 힘이 들었다. 먹고 보고 (사진)찍고. 그렇게 일본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작지만 알찬 것, 깔끔한 것을 추구하는 민족답게 호텔방도 깨끗하지만 너무 작았다. 욕실을 겸한 화장실은 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된 O대리님이 들어가면 꼭 찰 정도로 작았다. 우리는 서로의 짐버킷-코를 곤다든가 하는 -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긴장하면서 잠이 들었다. 아쉬웠던 것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둘째 날은 일본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백박한 일

정으로 유후인-벳부-아소산을 다 돌아보는 코스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여름 캠프든 행복 여행이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일정과 프로그램이 너무 백박한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였다. 늦잠 자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려면 혼자 배낭여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새벽 다섯 시 정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짐 정리를 해 놓고 여섯 시 정도에 이른 아침을 먹으러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다. 확실히 여행을 하면 사람이 부지런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O채리님과 같이 뷔페식 아침을 먹는데 어제 저녁보다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너무 일찍 밥을 먹어서 우리 일행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현지인 투숙객 몇 명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식 중에 떠먹는 요거트 용기 같은 것에 담겨있는 것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참 맛있게 먹는 것을 보았다. 그 때는 몰랐지만 낫또라는 일본 전통

음식이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 청국장 같은 건강 음식인데 끈기가 생길 때까지 잘 비벼서 밥에 얹어서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인들의 장수 비결도 이 낫또에 있다고 들었다. 아침을 먹고 우리 일행은 버스로 두 시간 정도 달려서 유후인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전통 도시로 거리 전체를 개발하지 않고 전통 그대로 살려서 관광지화 한 곳이라고 했다. 특히 인접한 긴린코 호수는 온천수가 나와 물이 차지 않고 미지근하다고 했다. 먼저보니 정말 미끌미끌하고 따뜻했다. 커다란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낚시 생각이 간절해졌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번도 낚시를 가지 못했다. 석양이 물들 때 물고기들이 물 위로 팔딱팔딱 뛰어서 비늘이 황금빛을 낸다 하여 긴린코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온천수 때문에 땅도 푹신푹신한 것이 꼭 잔디밭을 밟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도 있었고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등 모두 하나같이 사진의 좋은 배경이 되었다.

유후인을 떠나 우리 일행은 일본 최고의 온천 도시 벳부로 향했다. 가는 길에 마음씨 좋은 가이드의 보너스 관광 코스로 주문지 바루라는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과 멀리 태평양을 볼 수 있었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고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마음까지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벳부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유노하나라는 온천의 주요성분 유황을 재배하는 곳에서 유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삼각형 움막 같은 곳에서 종유석처럼 기른다고 했다. 옛사람들은 온천을 이해하지 못해 지옥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래서 유래한 것이 일명 지옥온천-가마도지옥.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온천을 볼 수 있었다. 온천수가 붉은색을 띠어 피지옥, 물이 파란 바다 지옥 등. 여기서 온천수도 맛보고 온천수에 익힌 계란과 일본 사이다도 사 먹었다. 온천수는 느끼한 소금물 맛이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맛이였다. 온천수를 마시면 삼년 동안은 건강하다고 하니까 삼년 동안은 다시 입원할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계란과 사이다는 정말 맛있었는데 사이다 병이 특이했다. 병의 움푹 들어간 중간에 조그만 구슬 같은 것이 있어서 가스가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다. 이곳에서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 담배 연기를 온천수에 뿜으면 사우나의 수증기처럼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이였다. 물안개처럼 피어나는 수증기를 보며 있고 없음의 차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가마도지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천수에 족욕도 했는데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가뻗해진 발로 인생의 남은 여정을 씩씩하게 걸어가리라 생각하며 다음 목적지를 향했다. 드디어 벳부 시내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다. 호텔 뷔페식이였다. 첫날 저녁에 나온 메뉴와 비슷했는데 가지 수가 더 많았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아소산을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에 목장 휴게소에 들러서 산지에서 직접 짠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아소산 분화구의 푸른 물을 볼 수 있을까, 세계 유일의 분화구를 볼 수 있는 화화산인 아소산이 자신의 속을 보여주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소산을 향했다. 우리의 이런 속마음을 아셨는지 연세 많은 버스 기사님도 대관령 산길처럼 그 꼬불꼬불한 도로를 좌우로 핸들 돌리시며 속도를 내 주셨다. 아소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처님의 누운 옆모습과 같은 산 등성이 윤곽이 분명해지며 부처님 배꼽 부분에 해당하는 분화구를 향해 버스는 달렸다. 기사님 덕분에 마지막으로 프웨이 시간에 맞춰 아소산에 도착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니 하늘이 우리 TM실천식구들을 예뻐하게 봐 주셨는지 바람도 약하고 방향도 반대로 불어서 한번 보면 삼년간 재수가 좋다는 분화구 푸른 물을 눈이 부시게 푸른 물을 볼 수 있었다.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우리가 내려오자마자 바람 방향이 바뀌어 유황 가스 때문에 더 이상 분화구를 볼 수 없었으니 정말 운 좋은 TM실천,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의지만 강해진다면 무엇이든 장애를 딛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소산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일본식 샤브샤브 같은 것에 개인상 한 상씩 차려져 나오는(이름은 잊

어버렸다)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고 모두 유카타로 갈아입고 단체 사진을 찍은 다음 온천을 했다. 뜨거운 온천수에 찌든 마음과 정신 모두 정갈하게 씻고 여독을 풀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5월 14일 - 다시 일상을 향해, 인생이라는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어제 저녁과 같은 개인상 한 상을 받았는데 감사 하게 다 먹기는 했지만 별로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김치 생각이 났다. 반찬 중에 예의 그 낫또가 있었는데 식힌 콩 같은 것을 비벼보니 끈기가 생겼다. 그걸 밥 위에 얹어서 먹는데 비위가 좋은 나도 조금 밖에 먹질 못했다.

아침을 먹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구마모토를 향해 2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갔다. 가는 도중에 자다가 깨면 우리나라 고속도로고, 자다 깨면 또 우리나라와 별 차이 없는 고속도로고 했다. 차창으로 스치는 풍경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별로 볼 것이 없고 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가이드께서 해 주시는 구마모토성의 유래와 역사, 인물사 등 중요한 정보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놓쳐 버렸다. 그 중에 딱 하나 임진왜란 당시 침략의 첨병 역할을 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지은 성이라는 것만 들었다. 구마모토성은 우리나라 성들이나 궁에 비하면 일단 높았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는 조총 쏘는 구멍이 나 있는 창들이 층층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좁아지는 곡선형으로 지어져 있었다. 일본에서 일본 성을 그것도 임진왜란의 침병 노릇을 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지은 성을 보고 있자니 옛날 도란마 '불멸의 이순신' 생각이 났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족 감정이라고 하든 해 버리기엔 앞서 아직도 정신대 문제라지 해결되지 않은 양국 간의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낙서라도 해 놓고 오고 싶었지만. 일본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다자이후에 있는 학문의 신을 모신 태재부천만궁이란 신사를 다녀왔다. 잠깐 둘러서 사진 찍고, 손으로 문지르고 병이 있는 복위에 갖다 대면 병이 낫는다는 황소 동상에서 아픈 정신의 치유를 기원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맛있는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면세점에 둘러서 쇼핑도 했는데, 어머니께 드릴 오천엔 짜리 양산울, 동생들이 쓸 향수를 샀다. 잔돈 1엔까지 비누로 바꿨다. 공항에 도착해 이번 행복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가이드께서 말하는 온사마로 대표되는 한류열풍과 일본의 문화, 양국 간의 민족 감정,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일본이 지향하는 깔끔한 소국(小國), 비록 WBC에서 우승은 했지만 야구도 스포츠 경기의 천국, 글로벌 리더로서의 일본이란 나라의 지위 등 등.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조금은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제 정신을 못 차린다면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섬나라 일본을 관광하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섬과 섬 사이의 간극처럼 멀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늘을 날며 먹먹해진 귀로 내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이상한 상태로 다시 한반도, 그 남쪽에 내려앉았다. 다시 일상으로, 건강한 복귀를 위해.

- ① BM실천 식구들이 올라탄 제주항공 비행기 ② 후쿠오카에 위치한 캐널시티 쇼핑몰 ③ 유후인에 위치한 긴린코호수전경 ④ 유후인 상점들중에서 꽃밭정원에서 찰칵 ⑤ 뱃부에 위치한 가마도지옥에 파란바다지옥 ⑥ 아소산 정상 용암 ⑦ 일본정식 요리 "가이세끼" ⑧ 구마모토성 앞에서 원장님과 함께 ⑨ 다자이후 신사 앞에서 찰칵



하리가토 고자이마스.. 귀에 맴돌다



직업재활팀 | 양현모 사회복지사

2010년 5월.

2009년부터 기다려왔던 여행이었는지 몰라도 더 커져버린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은 더 즐거운 여행이 되라며 인사해 주는 듯 했다.

10시 반에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던 우리들..... 그러나 역시 나의 예상대로 한 시간 반전부터 우리 식구들은 모여 있었다. 시간약속 하나는 칼인 EM실천 영종대교를 건너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우리들은 가이드님과 간단히 인사를 하였고, 일본을 가기위한 티켓발급과 짐을 실었다. 2시 30분에 우리를 태운 비행기는 4시에 키타큐슈공항에 도착하였다. 작고 아담한 공항을 벗어나니 사방이 온통 넓게 뻗은 바다였다. 푸르고 깊고 넓은 바다와 하늘마저 파랗게 마음은 더 흥분되었다. 왠지 즐거운 것만 같은 이 기분. 차를 타고 가이드님의 일본에 대한 설명은 시작되었다. 무려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고 크게는 4개의 섬 규슈, 홋카이도, 본섬, 시쿠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중 우리는 규슈의 북쪽지방의 인공섬인 키타큐슈를 관광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와 지형적으로 비슷한 크기를 가졌구나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형은 3배 인구는 무려 4배나 많았다.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일본인들의 자긍심,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되었다.



처음 방문지는 '캐널시티'라는 우리나라의 코엑스몰과 약간은, 아주 약간은 비슷한 기능을 지닌 건물이었다. 일본인들의 개성이 보이는 옷들과 유명한 라면박물관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지만 일본에서는 자판기가 만물상점처럼 담배, 화장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자판기를 볼 수 있었다. 건물 안에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분수 쇼를 하며, 일본의 다른 도에서 관광온 학생들 또한 볼거리였다. 지역별로 지형과 특성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구경 가듯 일본사람들 또한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한다. 그렇게 한 시간 반 정도 구경을 하고 다시 차에 올라 우리가 첫날밤을 지낼 비즈니스 호텔인 카메노이 카메노쿠마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이었지만 화려한 서울의 호텔아경보다는 일본인들의 깔끔하고 깨끗한 전경과 방 구조를 볼 수 있었다. 첫날 약 4시간정도 일본을 다녀봤지만 손님이 아니더라도 옷깃만 스쳐도 '쓰미마젠, 아리가토고자이마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러한 인사를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요즈음 한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만 보더라도 잘못을 해도 미안해하거나 고마워 할 줄 아는 감정표현이 좀 어드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첫날 저녁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인들의 음식문화를 볼 수 있는 저녁식사시간이다.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 않았다.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접시에 담겨있고 뷔페식으로 조금씩 음식을 집어 담아 먹으면 되는 것이었다. 한입배어 먹는 순간...아 짜다.....라는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가이드님 말로는 일본인들은 음식이 짭짤은 "음식에 정성을 들였다, 또는 음식의 맛이 진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주문할 때 맛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음식을 만들 때는 이보다 더 이상 맛있게 만들 수 없을 만큼의 경지까지 올라 음식을 만들어 내놓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음식을 남기는 것은 일본인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3일 동안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쁘기도하고 짜기도하다. - -

그렇게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첫날밤을 보냈다.

두 번째날 아침식사에는 일본인들의 장수비결이라고도 하는 낫토(콩발효음식)와 낫계란 미소돈장국 등 간소한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었다. 낫토의 그 향은 마치 청국장장과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바쁘게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일본인들은 시간약속이 칼이고 약속시간지키는 것이 한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도 하니 부랴부랴 짐을 싣어 두 번째날 일정을 시작하였다.

첫날에는 기타큐슈 공항에서 후쿠오카의 숙소까지 이동을 하였는데 두 번째날에는 유후인-벳부-아소 등의 코스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약 2시간정도 차를 타고 가며 어제는 볼 수 없었던 강원도의 2배~3배정도 많은 나무와 산과 경치를 볼 수 있었다. 눈은 자로 잰듯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눈이 펼쳐져있고 집들은 갈색톤의 지붕으로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모여 마치 새로 지은 듯한 집처럼 깨끗하였다.

그렇게 자연을 두루한채 유후인 거리에 도착하였다. 유후인은 온천용출량이 많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마을안에 있는 긴린코호수는 온천반 호수물 반으로 채워져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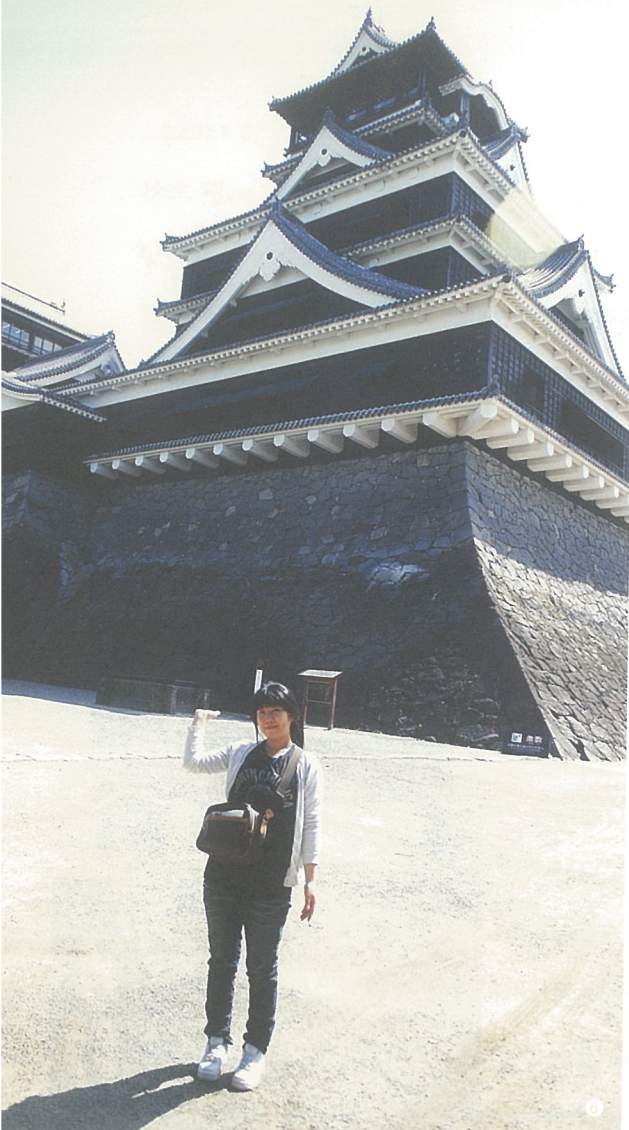
우리가 갯을때는 날이 따듯해 볼수 없었지만 온천수가 뿜어나와 겨울에는 딱딱이 호수위에 안개를 볼수 있다 한다. 땅에 손바닥을 대보면 따듯한 기운마저 느껴졌다. 신기한 일본의 지형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유후인마촌은 찻집과 아이스크림 민예품등 볼거리가 많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사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을 벗어나 벳부의 전망대에 올랐다.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을 들어 일본에 온 것을 한껏 자랑하듯 사진을 찍고, 다음장소로 이동하였다.

다음 이동장소는 온천의 도시! 벳부로 이동하여 지옥온천에 도착하였다. 가마도지옥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입구에는 큰 가마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있는 귀여운 모습이였다. 지옥온천의 별미 천연사이다, 온천물에 담가 끓은 계란을 먹었다. 천연사이다가 들어있는 병또한 예뻐서만 병안에 구슬이 들어있어 탄산이 빠지는것을 방지한다고 하니 다시한번 감탄했다. 그렇게 계란과 사이다를 신나게 맛본뒤 족욕을 할수 있는 온천물이 있었다. 발에 담구니 피로가 싹 풀리는듯했다.

소금을 약간 풀어넣은 듯한 멍멍한 온천물을 한모금 마시고, 다른한쪽에서 한 아저씨가 담배연기를 후~하고 온천물에 불어넣으니 보글보글 물이 튀어올랐다. 신기하여 모든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계란과 사이다를 배를 채우고, 일본부페음식점에 들러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일본에 온지 이제 하루가 지났건만 식당에 있는 김치가 너무 반가워 두접시는 비운듯 하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유노하나로 이동하였다. 유황냄새가 코를 찌르게 풍겼지만, 유황이 재배되는것을 보기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짚으로 엮어 지붕을 덮고 유황을 재배하는모습은 마치 우리나라 겨울철 김장독을 물어논 것과 같이 느껴졌다. 우리식구들 말고도 한국사람이 많이 순간 한국을 관광하는듯했으나 여기저기 일본어로 쓰여진 글씨에 정신을 차리고 구경을 하였다. 다음장소는 아소산이었다. 아소산을 멀리서 보면 마치 부처님이 누워있는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경할 아소산분화구는 부처님 배꼽부분에 있다고 하였다. 차가 달리고 있는 시간 3시, 우리는 4시 20분전 도착하여 마지막에 이블카를 타야하는데 가까워지기만 한 아소산에 도착할수 있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우리를 태운 다나카상기사분의 전력질주로 정확히 10분에 도착하여 90명정원의 로프웨이를 타고 아소산정상에 올랐다. 어제부터가 이드님께서 날씨가 좋아도 바람의 영향등으로 분화구를 볼수 없을수도 있으니 열심히 기도하라던 이야기가 떠

올랐다. 우리는 다행이도 날씨가 좋고 바람도 적어 뚜렷히 분화구 밑을 볼 수 있었고, 재수가 좋아야 볼 수 있다는 분화구에 고여있는 물까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너무나도 기쁘고 더기뻐것은 분화구 물을 보면 3년간 재수가 좋다는 말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부뒳함. 내려갈때는 천천히 완만한 언덕같은 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4시 20분에 케이블타에 탄 사람들은 분화구에 갑자기 유화가스 분출이 심해져 보지도 못하고 내려갔다고 한다. 그말에 웬지모르게 더기뻐했다. 내가 너무 사악한가보다.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말에 무섭기도 했지만 여기저기 화산의 영향으로 벌거벗은, 풀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보며 내려왔다. 버스에 오르기전 신을 모셔논 신사에 둘러 커다란 돌맹이를 몇 번 문지르고 아픈곳에 대면 난다고 하여 우리 식구들은 연신 문질러 아픈곳에 대보곤 버스에 올랐다. 가이드님께서 돌에서 게르마늄성분이 나와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것이라 설명하셨다. 운 좋은 우리들 버스에 올라 넓게 뻗은 푸른 초장에서 쉬고 있는 말을 보며 근처 온천호텔로 달렸다. 유명한 온천호텔인 아소호텔에 도착하니 첫눈에 기모노를 입은 할머니지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방에 들어가니 넓은 다다미방으로 옷장에는 기모노가 잘 놓여져 있었고, 깨끗한 이부자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간단히 짐을 풀고 기모노를 입고 1층에 모두 모였다. 모두 잘어울린다며 한껏 뽐을 내 사진을 찍고 저녁식사를 하러갔다. 저녁은 온천여관음식 '가이 세끼'를 정식으로 먹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샤브샤브식으로 끓는 양념에 고기를 넣어 건져먹고, 따뜻한 밥과 미소된장국, 호미 몇점, 샐러드, 무슨 면인지 생각은 안나나 잡채보다 약간 딱딱했던 면음식, 계란찜 등등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정도로 많은 음식이 한사람당 하나씩 놓여져 있었다. 정식의





로 한 상 배부르게 먹으니 절로 따뜻한 온천물에 몸담으면 힐링
 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얼른 숙소에 올라가 짐을 챙겨 8층 온천
 탕으로 들어갔다.

상상했던것과는 다르게 시골 목욕탕과 같았다. 작은 탕 하나에
 몇몇이 몸을 담구 온천욕을 즐기고 있었다. 매일매일 온천물이
 평평 나온다니 온천물을 끌어나 우리집에 해놓으면 참 좋겠다 하
 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다. 데비는 한국 문화와 틀리게 하얀수건
 으로 살짝 거품만 내어 샤워식으로 목욕을 하니 찜찜하기도 하
 고... 아무튼 샤워를 하고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피부가 매끈매끈
 해지고 가뻐해졌다. 숙소에 내려오니 이불이 싹~깔려져 있었다.
 폭신한 이불에 누워 금새 잠이 들었다. 셋째날 아침, 아침식사로
 저녁만큼이나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맛있다는 표
 현을 잘 한다하여 먹는내내 '오 이시(맛있다)' 하며 유난스럽게 식
 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마지막날이라 시간에 맞춰 공항에 가
 야하여 정신없이 움직여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처음 도착한곳은 1601~1607년에 완공된 축성술의 기재 가토
 기호마사의 지휘이래 지어진 일본의 3대 성중 하나인 구마모토
 성이었다. 촘촘히 쌓여진 성벽과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넓게
 인공호수를 만들었는데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다. 현재는 물을 빼
 고 잔디로 매꾸져 있었다. 1877년 서남전쟁으로 불이 났었으나
 1960년 재건하였고 성벽은 자그마치 9km둘레로 지어졌다고 한
 다. 나오는 출구에서 옛날 전쟁시대에 입었던 갑옷을 입은 일본
 아저씨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두 번째 장소로 출발하였다.



① 캐널시티에 있는 라면박물관에서 ② 유후인에 있는 긴린코호수앞에서 이진숙팀장님과 ③ 유후인거리에 있는 작은 상점들 ④ 아소산 신사(게르미늄을 만지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있음) ⑤ 유카다를 입고 ⑥ 구마모토성 앞에서 ⑦ 구마모토성에 있는 사무라이와 함께 ⑧ 태재부천만궁에서 조은숙씨와

마지막 장소는 학문의 신을 모신 태재부천만궁이었다. 우리나라에만 학구열에 불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말.. 마치 수학여행온듯 학문을 신에게 빌기위해 물려온 학생들의 수에 더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들 시험합격, 취업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 넣고 기도를 하였다. 학생구경, 태재부천만궁 구경 정신없이 가이드님을 따라 소동상의 뿔도 잡아보고 여기저기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공을 뱉쳐나오니 인사동거리를 보듯 상점과 예쁜 공예품들의 상점이 즐비해있었다. 거리를 걷다보니 한인음식점이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점심식사는 다름 아닌 비빔밥!!!!

평소엔 잘 안 먹었는데 일본에 가니 그렇게 꿀맛일수 없었다. 고 추장을 듬뿍 뿌려버린후 미역국과 함께 밥한 그릇 딱딱하고 나니 벌써 공항에 갈 시간이 다되었다. 구마모토에서 다시 기타큐슈에 가는 길은 약 2시간 반정도가 걸렸다. 모두들 아쉬운 것도 뒤로 하고 가는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애칭으로 시간을 금같이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아껴쓰고 절약하는,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 되파는 영특한 일본인들의 장점은 분명 본받을 만했다. 정신없는 2박 3일,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글을 남기며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본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 천천히 다시 한번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 보자 하는 결심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2010 거제여행



바람의 언덕에서 단체사진



포로수용소



포로수용소 모형에서 촬영



전쟁에 사용한 제트기와 함께



포로수용소 전시관에서



포로수용소 꽃밭에서 찬희씨



포로선택권



도장포해수욕장에서



도장포해수욕장에서 남자 4인방



도장포해수욕장에서



도장포해수욕장에서 영실씨와 정기씨



계단에서 단체컷



상희씨



풍차앞에서



바람의 언덕에서



해금강가는 유람선



유람선 기다리는 중



함양 산책로

2010 일본여행



2박3일의 일정을 맞치고 한국으로 가기전 공항에서



일본에 도착한후 첫번째로 갔던 캐널시티



캐널시티에서 향미씨와 지영씨



유후인 상점에서 쇼핑한 후



긴린코 호수에서



긴린코 호수에서



유후인 상점에서



가마도지옥에서 온천



가마도지옥



유형재배에 대해 설명중



전망대에서 웅철씨와 진호씨



아소산 정상 (화산활동을 하는곳)



아소산 정상에서 선예씨, 회자씨, 은숙씨



아소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중에



유카다를 입고 단체사진



구마모토성에 앞에서 EIM실천 꽃미남 4인방



구마모토성 사무라이와 김영환원장님



태재부만궁 신사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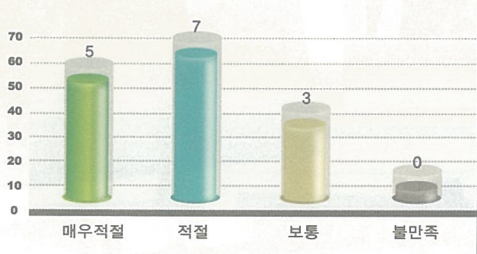


황금동상에서 브이짓하며 찍은 선예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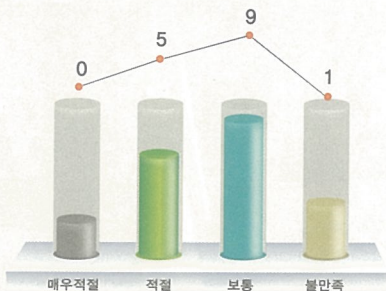
거제여행 만족도 결과

• 여행일시 : 2010년 4월 28일~29일 • 여행지 : 거제도, 해금강 • 여행참여인원 : 20명 • 설문조사참여인원 :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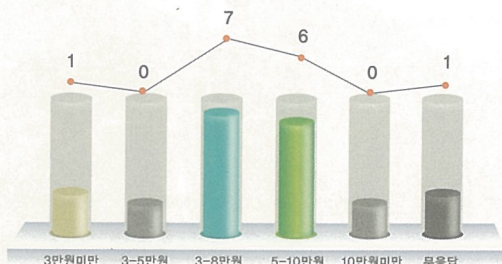
1. 1박2일이라는 일정에 대해서는 12명이 만족하여 일정에 대한 만족도는 63%



2. 여행사를 둔 비용에 대한 적절성은 비싸다는 의견이 26.3%, 보통 47.3%로 전체 응답자의 1/4분이 비싸다는 의견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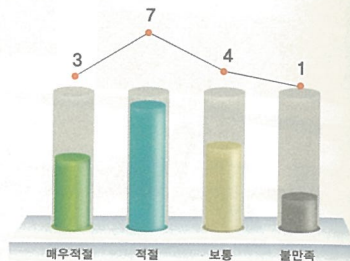
3. 이에 얼마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8만원 36.8%, 8-10만원 31.5%가 응답하여 5-10만원사이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8. 기타 의견

- 행복여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는 의견에는 13명이 응답했고 이중 의견으로는 그룹을 나누어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여름캠핑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은 힘들다, 경비가 부담된다, 사전답사등의 부채등의 응답이 있었다.
- 행복여행, 나들이, 여름캠핑, 겨울캠핑중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하는가라는 의견에는 행복여행과 여름캠핑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4. 여행장소에 대한 의견의 경우 1차 여행전 사전조사를 통해 바다라는 의견이 있어 행복여행을 다녀왔으나 실제 여행지에 대한 만족평가결과 만족이 10명으로 52.6%가 나왔다.



5. 여행지중 인상깊은 곳은 해금강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여행중 식사의 맛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나 맛이 없거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26.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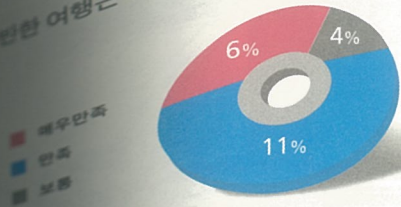
7. 이상으로 전체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성별비율은 52.6%로 여성참여자가 높았으며 연령대는 63.1%가 30-40대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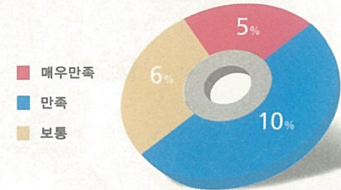
일본여행 만족도 결과

• 여행일시: 2010년 5월 12~14일 • 여행지: 일본기타규슈 등 • 여행참여인원: 21명 • 설문조사참여인원: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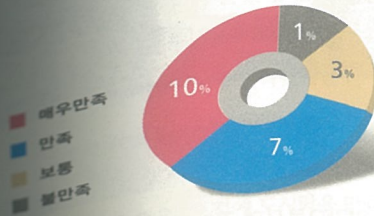
1. 여행을 동반한 여행은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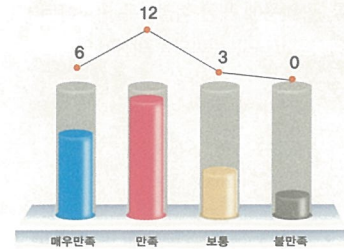
5. 숙소는 어떠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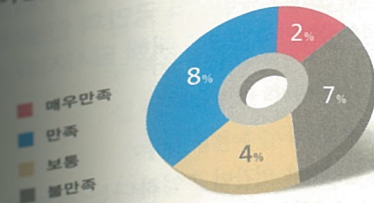
2. 여행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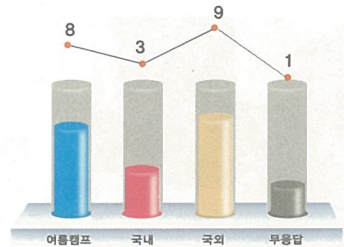
6. 코스별로 주어진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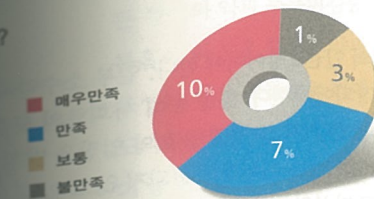
3. 여행 일정 여행기간은 적절했나요?



7. 여름캠프와 국내 · 국외여행중 더 선호하는 여행은?



4. 음식의 맛은?



8. 전체평가

여행사를 동반하였던 이번여행은 가이드의 안내로 공항에서의 처리해야 할 부분들과 그나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수 있어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음. 탄탄한 계획으로 여러곳을 둘러볼수 있었으나 하루에 여러코스를 둘러보아야 하여, 자세하게 관찰하거나 구경하기에는 어려운부분이 있었음. 개인적여유나 시간을 갖기 어려워 가이드에 맞춰 따라가기 힘든부분이 많아 불만족하는 평가가 나왔음. 일본이라는 장소에 대해 만족해 하였으나 일정이 짧아 아쉬워 하는 부분과, 다음 외국 여행을 추진할때는 그나라에 대한 정보를 더 공부하고 여행을 즐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절대 침범할수없는 권리이다. 2010년 EM실천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장애인권인의 실태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당사자와 사회복지사 모두가 자라할 시간을 가져보았다.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진 도덕성의 척도이며(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원권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권은 동일한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이어야 한다. 일부 소수약자들의 보호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을 통해 사회로의 도전을 하고 있는 EM실천의 근로 정신장애인들은 누구나 더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 옹호의 입장을 밝힐 때 권익항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기회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M실천은 장애인의 날을 통해 장애를 가진 자들의 삶 전반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해 가는 날을 앞으로도 마련하고자 한다.

-EM실천 총무기획팀 박미연

일하며 봉사하는 우리는 햇살 동료들

❑ 취업자 이말순

서울대 입구역에 8시 까지 모이기로 하였으나 역시나 조금 늦고 말았다. 인원이 다 모여 관악시니어 클럽에 도착했을 때는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안으로 들어서니 1층 식당안은 분주했다. 도시락에 반찬을 담는 사람들, 국을 담고 계시는 어르신, 반찬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 다들 바쁘게 보였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파트별로 나뉘어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어리버리 하게 시작했지만 곧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빠르게 대처해 나갔다. 반찬통에 반찬을 일정하게 덜어 넣으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넣으려고 하는 세심함이 눈에 들어왔다. 1시간 정도를 다들 열심히 협력해서 도시락 포장을 끝마쳤다. 조금 여유가 생겨 도시락이 어디로 배달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물어보게 되었다. 주말이 되면 노인분들이 식사하기가 힘들어져서 토요일 오전에 도시락을 만들어 주말동안에 드실 식사를 배달한다고 한다. 반찬을 적게 넣어도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 가끔 항의 전화도 온다고 한다. 그래서 반찬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포장된 도시락을 관악노인복지관에 전달하러 간 동안 남은 인원은 식당청소를 하고 남은 집기 등을 정리하고 관악시니어클럽 라운딩을 했다. 큰 공간은 아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한다. 택배사업, 숲체험 프로그램, 뽕튀기, 참기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관 라운딩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이른 점심을 먹었다. 어르신들이 드실 식사라 반찬 하나하나에 신경을 쏟아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고 만든이들의 정성이 묻어났다.

마치 예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밥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식사를 하고 각지역의 어르신들이 만든 특산물을 파는 '콩각지' 로 갔다. 몇분의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다들 적극적으로 물건을 만드시고 파시는 것 같았다. 직접만든 두부와 약과 두부튀김등을 사서 나누어 가지고 다른 이들과 헤어졌다. 그 룹홈에 와 사온 두부와 약과, 과자등을 먹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했다. 오늘 봉사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했다. 어려운이들을 위해 조금의 시간을 내어 도와주었을 뿐인데 부분이 이렇게 좋은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행복한 일터

우편사업부 | 박 철

EM실천에 입사한지 두달이 되어 가네요.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이런글을 쓰기는 오랜만이에요. 제가 정신분열증이 처음 발병한지가 1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 발병했을 때 망상증상이 심했습니다. 저의 형이 증상을 알았나봐요. 두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몸도 정신도 차차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사하기전 마지막으로 다닌 직장이 빌딩전 기기사였습니다. 형광등도 교체하고 전기 배선일을 주로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재발증상이 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M실천에 입사하기 전 3년간 쉬는 기간이 있었죠 지루하고 보람이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금천구청신보건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운동시간과 화장품 만들기를 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사회복지사님의 권유로 지금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 장애인이 다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전에는 전혀들어보지 못했거든요.

EM실천에 들어와 처음하게 된 일이 우편발송사업부였습니다. 팀원들 끼리 협동하여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은 라벨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실수를 하는데, 앞으로 실수를 줄여나 가도록 노력 해야겠네요. 열심히 일해서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잘 협동해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자.

우편사업부 | 정동욱

제 인생이 바뀐것은 군입대후 1년 반쯤이 지난즈음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던중 발병을 해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울증이란 말을 듣고 저는 상심했습니다. 처음엔 병인줄 몰랐지만 약을 먹고 괜찮아 졌을때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부작용으로 여드름 투성이가 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게 돼서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또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려갔을때 병원비가 80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으며다닐수 있었습니다. 다시 괜찮아 졌을때 저는 일 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힘들게 구한 일자리도 얼마 다니지 않아 부도가 나고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또 약을 먹지 않고 지내다 또 재발을 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약을 먹어야 평소처럼 지낼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허비 하며 보냈습니다. 잠이 들기전 다시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정신 보건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집을 방문해 주시고 불편한점은 없는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센터를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엔 복지사 선생님이 힘들어 할까봐 권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부탁을 해서 다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게 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지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우편사업부 | 홍진기

태어난 곳 : 봉천 3동

성장과정 : 동네 친구들과보다 뒤처지지 않게 지냈다

방위복무 : 1년 정도 견디다가 졸도하여 현재까지 병원약을 복용하고 있다

직장관계 : 주공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친척형과 3개월 있었던 경력이 전부다

EM실천 : 예전에 며칠 다니다가 그만 두었는데 EM실천이 가산동으로 이사와서 정신보건센터의 소개로 다시 다니고 있다.

친구관계 : 어느 집단에서든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다 지금 EM실천에서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친구에게 실직을 안겨주었다, 너무 미안하다

능력 : 보일러 자격증을 어렵게 땀는데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취직에는 실패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

집안 상황 : 부모님의 다단계 참여로 매형과의 거리가 멀어져 한해에 한번 모인것이 전부다 나의 바램은 부모님이 다단계를 포기 하셨으면 한다

현재 나의 일과 : EM실천에 출근하여 일과후 도서관에 다니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시간을 이용하여 자격증 하나정도 따고 싶다.

직장에서의 시관과 도서관에서의 시간을 잘 조절하면 하루를 후회없이 보낼수 있을것이다

미래 : 병원약을 평생 먹어야 할것이라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으로 약과도 친해져야겠다. 하루를 후회없이 보내고 싶다

Thank you

우편사업부 | 조민주

저는 79년 9월 5일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학교) 다니엘, 동천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철학관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연하셔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는 오빠 두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체 장애자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제 끈기와 성실 함으로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EM실천에 들어오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해 나갈 때 정말 삶의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정성을 다해 따라 가겠습니다.

제 성격은 활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르쳐 주시면 긍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에 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낯선 익숙함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 이아연

사회복지라는 옷을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 다니면서 입기 시작했다. 새 옷을 입었을 때의 그 설레임이 아주 조금 익숙해졌을 뿐인데, EM실천에서 사회복지실습으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직업재활이라는 단어도 아직 익숙치않고 장애인을 직접 대할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대상이 정신장애인이라 생각하니...두려움이 앞섰다. EM실천 박미선 팀장님이 정신장애인분들도 우리와 똑같다고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회적으로 인식된 이미지와 실습을 앞둔 상상 속에서 부풀어진 생각들은 막막함과 걱정으로 채워졌다. 내가 맡은 컴퓨터 고급반은 총 4명이었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첫 날 함께한 근로사원은 2명.

첫날 라포형성을 위한 머리를 싸매고 준비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반응일지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게 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긴장을 많이 했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다가도 어느 선을 넘지 않는 느낌이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수업은 4명 모두 참석 하였는데 처음 만나는 곱지 않은 시선의 한 근로사원의 눈빛에 살짝 주눅이 들어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다 누군가의 실수로 크게 웃을 일이 생겼다. 모두 함께 웃어버렸다.

나의 웃음도 그치지 않았고 그 곱지않던 시선의 근로사원도 함께 웃고 있었다.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란 사회적 인식은 실제로 만나고 관계를 갖기에는 불편한 만남이었다. 정신장애인은 항상 불안하고 힘들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 입문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내가 더 힘들어 했고 내 모습에 그들이 더 불편했는지 모른다. 첫 만남은 모든 사람에게 어색하고 처음부터 자신의 아픈 모든 부분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낯설게만 생각했던 정신장애인들. 그들의 삶의 아주 일부분을 함께 생활해 보니 그들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 중의 이제는 내가 새로 알게 된 익숙한 언니, 오빠일 뿐이다.



소방안전교육



목적

“화재 및 안전예방을 위한 근로자교육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한다.”

일시

2010년 5월 25일 오후 2시~3시 30분

교육처

구로소방서 홍보팀

교육참여자 총 22명

평가 및 관련사진

금천구로 이전 후 첫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EM실천은 현재 고층의 아파트형공장으로 화재시 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계단을 이용, 대피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우편발송작업장의 경우 종이 및 전선 등으로 인한 안전교육이 절실히 때문에 본 교육이 매우 유익하고 실제 화재 동영상을 통해 화재위험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구로소방서의 교육담당자는 화재동영상 및 교육영상외에도 소화기, 심폐소생술교육을 위한 준비자료를 통해 실감나는 교육을 진행해주었다. 하반기에 EM실천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자체 모의대피훈련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예방교육할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에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1 나는 연금 대상자일까?

기본자격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연령: 신청일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증장애인

※ 3급중복: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질문)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답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2 나는 연금 대상자일까?

소득과 재산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어야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부채) X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입니다.
-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증여재산 등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8천2백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세 중증장애인과 35세 배우자까지 공시가격 4천5백만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 소득인정액이 687,50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80만원)보다 적으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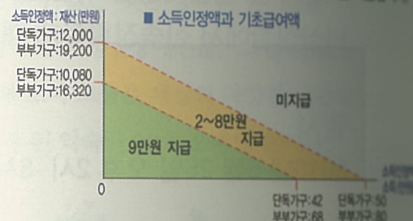
[(사업소득 500,000원) + (주택 4,500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87,500원)] = 687,500원

3 장애인연금 금액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는데
그 차이와 금액을 알려주세요.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을 지급합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4만4천원(9만원 X 0.8 X 2인)을 지급받습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4 연금 지급일은?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인데, 변동이 있나요?

장애인연금도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 다만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www.e-welfare.go.kr/pension에서도
기타 자세한 장애인연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소득보장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을 위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이 줄어드는건 아닌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현행	개편
중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급하는 장애수당은?

-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6 연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일시는?

5월 31일부터
6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기간인 6월 1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져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작성서류(읍·면·동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져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7 신청 및 지급절차는?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국민은행 가산테크노타운지점 자원봉사활동 보고



- 2010년 5월 29일,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매년 2회 자원봉사날으로 지정, 인근에 지역사회내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은행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내 관심을 갖는다는 취지아래 국민은행 가산테크노타운지점 직원 12명이 EM실천에서 자원봉사를 왔습니다. 친절과 봉사로 무장한 은행직원들은 자원봉사활동에도 특유의 장점을 살려 신바람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주었습니다. 함께하는 EM실천 직원들, 근로자들 모두가 즐거운 주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따뜻한 후원금(₩ 1,000,000)을 전달해 주신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EM실천의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EM실천 새로운 일꾼을 모집합니다.

- 등록정신장애인 만 18세 이상 ~ 55세 미만
- 정신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일할 의욕이 있는자



EM실천 후원안내

EM실천은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산하 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M실천의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있길바랍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810031-14505
예 금 주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EM실천 일거리 후원

EM실천은 **인쇄, 우편발송대행, 현수막 인쇄**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쇄, 우편발송대행, 현수막인쇄** 등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 의 : 02-875-9744, 9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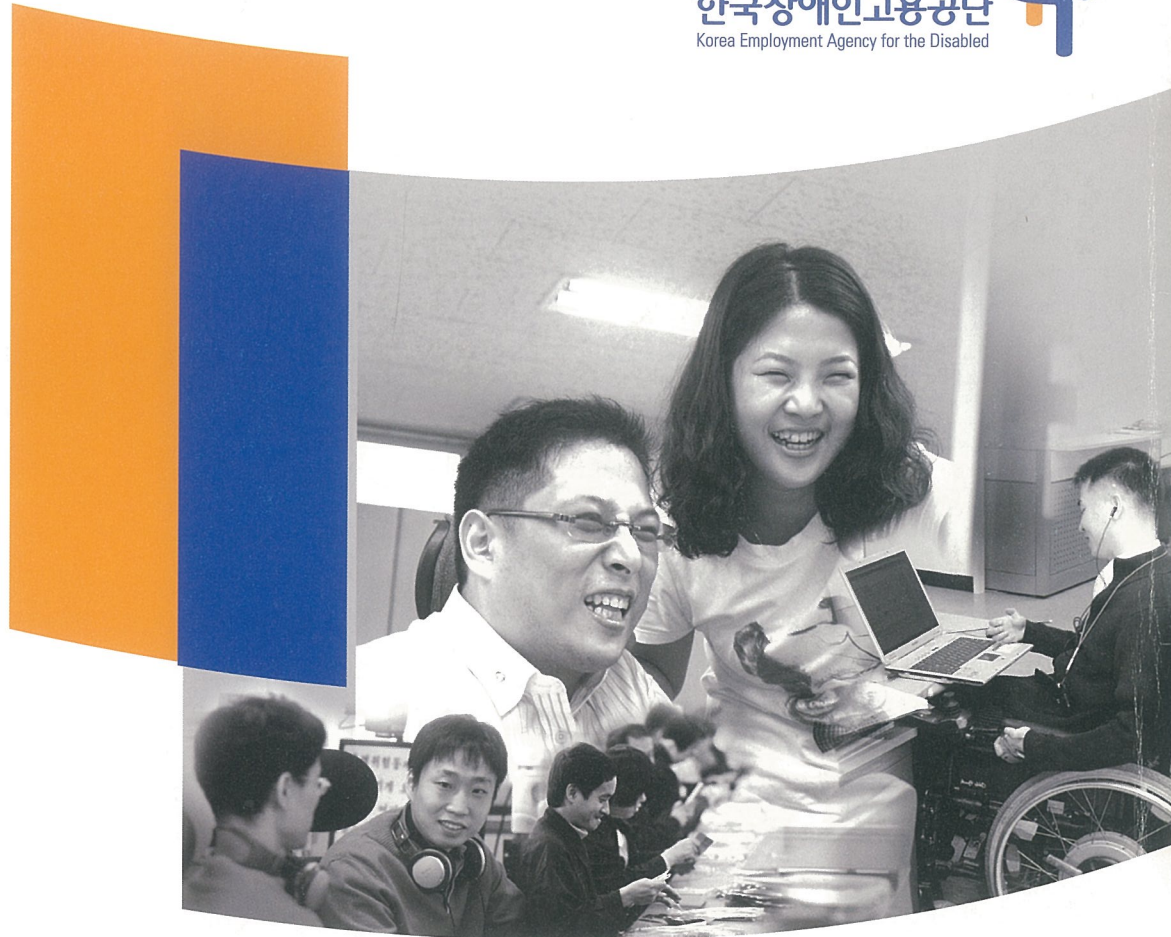
자원봉사 모집 안내

“봉사는 나누면서 내가 더욱 살찌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
‘한 번만 봉사를 해도 괜찮을까? 이번밖에 시간이 없는데..’
정기적인 봉사가 아니어서 걱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 | |
|----------------------|---------------|
| 01 내 · 외부 행사 보조 지원 | 02 일거리 작업참여 |
| 03 전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

후원해 주셨습니다

- 01 | 대릉6차 “웰빙푸드 구내식당”
“최병태” 사장님께서 근로사원 7명의 식비지원
- 02 | 국민은행 가산디지털지점
국민은행 직원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금 전달



함께해요! 장애인고용, 경쟁력도 늘어나요

공단은 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일터를 사업주에게 만들어 드립니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시설자금, 고용장려금 등 자금을
융자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도 무상임대
지원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 같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을 돕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